



제 75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http://council.gb.go.kr> 2013. 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양동마을

지면안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위원장 ... 제262회 임시회 개회사
인물포커스 / 상임위원장 인터뷰 4면
- 채옥주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전찬길 문화환경위원장

상임위원회 활동 5~11면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처리 안건 소개 12~13면

5분 자유발언 14면
특별기고 / 건강칼럼 15면
-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 새마을 운동과 지방자치
- 박태우 한의원장 ... 목 어깨 통증의 원인파 치료

제262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발로 뚫 의정활동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 도정 현장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정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했다.

구체적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5월 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집행부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경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배한철 의원의 의원당선 선서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이 이어졌으며, 5월 15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처리 했다.(처리안건 내용은 12면~13면 참조) ◆

제262회 임시회 개회사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생활속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처이자 우리 사회가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배한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도의원으로 우리 도의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비회기 중에는 일본의 독도침탈 교과서왜곡 규탄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도와 대구시의 상생발전 간담회와 정책연구위원회 개최 등 우리 도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체전과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 준비를 위한 당면한 도정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도내 저수지 붕괴사고, 산불발생 등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와 우리 도민 모두는 하나로 뜻을 모아 불안한 요소를

도민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기입니다. 일손 돕기와 농업용수 확보 등 영농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풍년 농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엄격하고 면밀한 검사를 통하여 대인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의 모든 뜻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일본 극우망동 즉각 중단’ 성명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헌법 제96조의 개정의도, 731부대 등 관련 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전체 의원일동으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헌법 제96조의 개정의도·731부대 등 극우망동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아베 총리의 과거 침략사 부정 등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시도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다.

성명서는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헌법 제96조의 개정 의도, 731부대까지 동원한 극우망동의 행동을 적극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과거 침략사를 부정하는 군국주의 회귀 시도에 대하여 우리 300만 경북도민은 개탄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은 잘못된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은 물론 인류공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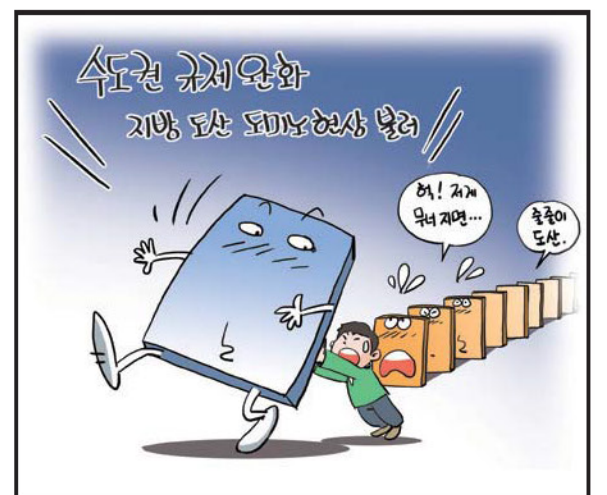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지방살리기 정책 펴야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게 되었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는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송 필 각 기획·편집 | 임현성, 남정해
편집인 | 이태암 발행처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예산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 요인 철저히 검사

경상북도의회는 2013년 5월 6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박기진 의원(성주), 홍진규 의원(군위), 구자근 의원(구미)), 재무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9명이며, 대표위원에는 현재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며, 재선의원인 박기진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을 선출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5월 9일부터 28일까지 20

일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의 검사활동을 펼쳤다. 🏠



의정활동 지원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의원입법 발의, 법률자문 수행

경상북도의회는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2명을 재위촉하고 5월 2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소속인 김상목 씨와 김정호 씨 2명으로 지난 2011년 5월 1일에 처음 위촉된 이후 2년간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재위촉하게 됐다.

현재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는 모두 4명으로 23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의원들의 다양한 지역활동과, 의원입법 발의, 각종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재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존 김 섭, 배동천 변호사 임기는 내년 9월 30일까지이다. 🏠

경북·대구시의회 상생발전특위, 현안과제 해결 본격 추진



청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의회 상생발전특위 김영기 위원장과 특위위원, 대구광역시의회 상생발전특위 김의식 위원장과 특위위원,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북·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의견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면서 현안사항인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대구광역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및 간담회에 이어 4월 24일 청송군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 문제와 경북도·대구시 공무원 상호 교육 교류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는 등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임업발전연구회, 정부정책 따른 산림관리 방안 세미나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의원)는 장세현 정책연구위원장과 도의원,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1일 '국가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가차원의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과 산림경관 인증제 등 도입에 따른 지역 임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



‘클린 경상북도의회’로 거듭난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5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을 통해 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

박성만 부의장,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식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4월 25일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식에 참석, 경북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은 물론 다양한 창조문화 활동에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한혜련 부의장, 경북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



한혜련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5월 5일 영천시 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제19회 경북어린이 날 큰잔치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오색 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위해 된다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포항시 6)

경상북도의회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포항시 6)은 뜻심 있는 여성위원장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알려져 있다. 여성위원이 적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상대적인 강점으로 작용하여 도의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채옥주 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서 8대 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교육현장을 확인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9대 의회에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도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개발 및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문자 해독을 못하는 계층을 위한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취약계층 자녀의 보호와 학습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및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새마음 운동으로 '감사운동'을 전개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에 대한을 제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 신도청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공간이 될 '경북여성플라자' 건립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채위원장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현대사회는 계층과 세대간의 이해 충돌과 불평등이 상존하는 사회라고 전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확대와 서비스 제공을 다양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향후 "도민의 복지욕구 확대와 복지예산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정책개발 및 지원방안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다짐하였다.

품격높은 문화향유, 쾌적한 환경수요에 눈높이 맞춘다



전찬길 문화환경위원장(울진군 1)

"품격높은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쾌적한 생태·문화·휴양자원 조성 등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겠다"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문화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찬길 도의원(울진1)의 자신감 넘치는 포부다.

전찬길 위원장은 재선의 지역구(울진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8대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9대 도의회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전 위원장은 경북이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한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보존된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21세기 현대 문화시대에 맞게 디자인해 경북문화의 세계화와 강·산·바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특히 동서양의 문화 실크로드와 연결된 고품격의 경북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 문화와 화합의 대축제로 이끌기 위해 오는 8월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인 울진에서 도의회인

대구까지 먼 거리를 오가면서 경북관광공사의 본격적인 출범,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백두대간·낙동정맥 에코&비즈벨트 조성, 2015세계물포럼,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현안들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과 함께 밀도있는 점검과 확인, 체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등 성과지향적 위원회 운영을 이끌고 있다.

또, 전 위원장은 최근 주민들의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민생관련 조례안도 발의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제2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제정됐다.

이외에도 '자율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울진금강송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서5축 간선도로(봉화~울진) 4차선 조기착공',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등 현장 의정활동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9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악화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 등 혼신여력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범적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합리적 의회운영 위한 위원회 활동 활성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회기 운영 계획 및 처리안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5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있을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문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행정구현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4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방안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의회 의원 예비 지급방안 개선, 지방의회 의원 우편요금 지원 등을 건의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합동으로 '지방의회 기능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기로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지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 도입

■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2월 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의 실현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제주선언'을 채택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최근 인준행정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므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 토대로써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모색'으로 하고, 부제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보좌관 도입'으로 정하고 10여명 내외의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하여금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위한 근본 토대 마련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지방의회 인사권, 보좌관제 도입방안 지지 결의

지난 4월 5일 인준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사항에 대하여, 이는 지방의회 기능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

방안은 지방의회의 본래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 정부는 이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적극 지지하면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만화로 보는 경상북도의회' 발간

어린이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쉽게 설명

경북도의회는 도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로 보는 경상북도의회'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만화책자는 경북도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존 서술식 '의회안내' 책자를 방문객에게 제공해 왔으나 최근

초등학생들의 '1일 체험학습'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행했다.

특히 '만화로 보는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역사 및 역할과 기능, 의정활동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이외에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내용을 게재해 학습

적인 면을 보완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조례제정, 예산·결산 심의, 의회용어 등을 재미있는 만화와 간결한 설명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태안 사무처장은 "초등학생들에게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어려운 지방의회의 의

정활동을 만화형식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산업의 뿌리, 지역중소기업 생산현장을 찾다 동북아시아사무국 외국공무원과 대화의 시간 가져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장면

며 “그런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동북아 자치단체의 경제통상, 환경, 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라리안과 프라이드 업체 현지방문

기획경제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틀간 집행부, 중소기업 주간(5월 13일(월) ~ 16일(목))을 맞이하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실시한 현지확인인 성주, 칠곡, 예천에 소재한 도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과 도 중점 육성지원 중소기업인 프라이드 업체에 대하여 방문을 했다.

박진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 이틀간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민생관련 조례안·동의안 의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5월 2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각종 재난현장 등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체계적인 소방 안전망 구축과 현장 대응 활동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인력 증원과 영덕소방서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인 산업디자인을 우리 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는 등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의견 수렴

■ 동북아시아사무국 외국공무원과 대화의 시간 가져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과 포항출신 장세현, 김희수, 김말분 위원들은 5월 9일(목) 포항시에 소재한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에 파견된 회원단체 외국공무원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동북아시아 광역 지방정부간 상호교류와 협력 증대를 통한 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제9차 당사 총회에서 사무국의 경북도 장기존치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6개국 71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사무국은 1국 2과 16명으로 운영되며 현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에서 파견된 4명의 회원단체 외국공무원이 회원단체 연락 업무 및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시대 동북아의 중요성 날로 증대 향후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역 될 것

이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위원들은 고향에서 멀리 타국까지 와서 열심히 동북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외국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현 위원장은 “21세기 세계화시대 동북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

업체인 성주의 대양제면(국수), 목화표장갑(장갑, 양말)과 칠곡에 있는 신우파엔씨(성인용기저귀), 삼익에스이에스(주방용품), 예천의 삼한 C1(점토벽돌)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현 위원장은 수출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과 저금리 자금 및 홍보 지원 확대에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 칠곡 왜관에 소재한 성인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실라리안 업체인 (주)신우파엔씨 현장방문

◀ 동북아시아사무국 회원단체 파견공무원과의 현장대화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강화 여성능력 개발 및 건전한 인격형성 위한 전인교육 힘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장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개발하고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

민생관련 조례 의결, 제도적 근거 마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5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 의결했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BRANKSOME HALL ASIA 견학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방문 사업현황 및 시설 견학

황이주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와 박병훈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김수용 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했다.

채옥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영어교육도시 견학

■ 여성 사회진출 확대 조성, 교육환경 조성 노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월 13일, 14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와 제주 영어교육도시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를 방문했다.

제주도는 김만덕, 강령국 등 여성 선각자를 배출한 유서깊은 고장으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는 제주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문화 전승·창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 김영운 소장의 업무현황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미혼모 보호사업 등에 대해 사례를 청취했다.

또한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 공연장, 패션디자인실, 북카페, 정보화교육실, 보육실, 조리연습실 등 문화·복지시설을 둘러보고 경북도의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주요시설을 사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 세계 8대 명문 학교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를 방문하여 학교 현황 및 교육프로그램을 청취하고 교육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렌 라도이코브치 교장과 교장의 대화에서 글렌 교장은 '글로벌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학습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 고취,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교육은 입시에 집중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채옥주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게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기대 문화·관광 자원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심사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2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인 5월 3일(금) 소관 분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2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용, 전찬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기로 수정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앞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문화예술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계획안' 심사에서는 (주)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난 2011년 12월 8일 도의회에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건을 의결한 이후, 인수 협상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합의되지 않은 이견자선에 대해 법원조정 결정(2013. 3. 20)으로 매수원금이 확정됨에 따른 추가출자 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폭넓은 현장여론 수렴하는데 노력

■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통한 발전

문화환경위원회는 5월 6일에서 7일까지 제262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중 안동지역 일원에서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관리운영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실태 등을 살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대회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규모가 큰 행사인 만큼 생활체육을 통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단순한 체육인들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을 소개·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대회홍보와 참여분위기 확산, 청결한 숙식환경 제공, 바가지요금 근절 등 남은 기간동안 힘을 모아서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지난 4월 25일 개원해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다양한 창조문화활동에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중인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하고 지역에 차별화되고 숨겨진 문화자원의 진수를 찾아내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기초인프라 강화는 물론 창조기업 유치 및 육성, 융합콘텐츠 개발 등의 문화산업 컨터볼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장면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 점검 생활체육 통해 전국민 대통합시대 여는데 기여

다워 역할을 충실히 다져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유교문화권의 관광거점인 안동댐 인근 안동시 성곡동 일원에 165만㎡(50만평) 규모로 2003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10여년간 조성한 안동문화관광단지내 유교랜드 및 골프장 등 개발 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전찬걸 위원장은 "우리 경북은 한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보존되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고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폭넓은 현장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상황(오른쪽)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위쪽) 및 개발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동지역 일원에서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침.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엔저 따른 농수산물 수출업체 경영안전대책 간담회 고령에서 독도까지 현장 의정활동 강행군

농수산물 수출업체 경영안전 대책 산대저수지 붕괴 재발 않도록 당부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중 5월 3일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간부들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산대저수지 붕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위협저수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시행으로 '12년 10월 이후 엔화 가치의 급속한 하락으로 대일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 수출업체 경영안전자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농수산위원회 회의 장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 필요 독도 해역 바다목장화 위해 적극 지원 계획

현장의 목소리 의정활동 적극 반영

■ 현장 보고 및 방류행사 참석

농수산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인 5월 3일 농수산국장으로부터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받은 후 고령 축산물 공판장과 덕곡 저수지

현장을 둘러보고, 5월 6일 ~ 7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 해역 바다 목장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촌계장, 주민과 함께 4~5cm크기의 치패(어린전복) 2만마리 방류 행사를 독도해역에서 가지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지난달 도내 저수지 붕괴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관리 부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와 상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덕곡 저수지를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었다.

한편, 축산물 공판장에 둘러 관계자들에게 일련현황을 보고 받은 후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과 경제·출하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된 만큼 관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무분별한 방류행사와 채취로 독도 고유전복이 멸종위기를 맞았으나 독도고유 왕전복 복원 사업을 2006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고유종을 완전 복원하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묘생산·방류를 시작하여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복 방류행사를 통해 독도 고유전복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는 한편, 앞으로 독도 주변 해역을 전복, 소라 및 해삼을 집중 육성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독도 해역 바다목장화를 위해 전복, 홍해삼, 어린고기를 매년 500만 마리 방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어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칩을 이용하여 어린전복을 방류하면 시간경과에 따른 성장률, 먹이인 해조류 분포도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량생산을 통해 독도해역을 바다목장화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고, 방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은 의정활동에 꼭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독도 고유전복 2만마리 방류

▶ 고령축산물공판장 현지확인



건설소방위원회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 해결모색, 발벗고 나서 도정현장 발로 뛰는 역동적 의정활동 눈길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장면

강정고령보 현지방문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우측교의 차량 불통행에 따른 막대한 물류 비용 증가 등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경북도, 대구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령군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도집행부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를 찾아 업무보고 및 생화학분석차량 및 각종 화학·특수장비 설명을 청취한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함은 물론, 화학 및 특수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지 확인 통한 의정활동 역점

■ 안전관리 실태·공사 추진현황 점검

건설소방위원회는 우수기에 대비하여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5월 9일에는 군위지역 동명~부계간 도로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팔공산 한티재 터널 내부공사 현장에 들어가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확인 점검했다.

이어 상습 침수위험 등 반복적인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사중인 의성 안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공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문경 농암~산양간 도로건설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청취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5월 10일은 경북혁신도시사업단을 찾아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추진 성과, 이전공공기관 청사 신축현황 등 보고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입주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방문과 한국도로공사 공사현장을 둘러 본뒤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입주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시설, 학교 등 편의시설을 조기에 조성·완료하도록 당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두옥 위원장은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항상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팔공산 한티재 터널 내부공사 현장 들어가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척상황 꼼꼼히 확인 점검

긴급기동대 운영실태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중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이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등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각종 화학 및 방사능 사고시 초기대응 및 전담부서인 ‘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를 찾아 현황보고, 애로사항 청취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 ‘경북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로부터 각종 화학·특수장비 설명 청취

▶ 농암~산양간 도로공사 현장내 지동터널 현장확인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명품’ 경북교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탐색 기숙형 공립중학교 성공모델, 충북 속리산중학교 방문

각종 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이 조례안 상정 시와 다르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의 조문과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댐 건설로 인한 학교이전에 따라 평은초등학교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 같은 교명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이동초등학교를 포함이동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경산과 인근지역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경산지인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견 교류

■ 기숙형 공립중학교 방문 의견 수렴

교육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성공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충북 속리산중학교를 방문한데 이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여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육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전국 제1호로써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2011년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다시 태어난 속리산중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학교를 방문한 의원들은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교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그간의 추진과정과 교육효과, 주민정서, 학생 만족도 등 추진과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시설을 견학하였고, 충북도의회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비롯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이나 지원 사항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 심사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어촌 현실감안 신중히

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교육위원들은 “기숙형 공립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란 아픔을 거쳐야 하지만 신설되는 기숙형 중학교에는 최첨단 교육 시설과 장비, 우수교원 확충 등 각종 인센티브로 일명 ‘명품 중학교’라는 ‘선물’이 될 수 있

다”고 말하면서 “학교폐교에 따른 지역적 상실감에 따른 반발문제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규모 학급과 학생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기숙형 공립중 전국 1호인 속리산 중학교를 교장과 함께 둘러보고 있음.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위원이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262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소방안전망 구축과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활동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관서 소관 분장사무의 지구를 정비하고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코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체계적인 재난안전망 구축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덕소방서」 및 「119안전센터」(5개소)를 신설하고, 영덕소방서 신설에 따라 포항북부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소방서에 「119구조대」와 구조·구급기능을 통합한 「119구조구급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11월 21일 신축 이전한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소재지의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영향력 확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증가 등에 따른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회계비리 방지 및 식육안전성 확보, 소방관서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공공·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물가관리 전담인력의 한시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4,976명에서 5,083명으로 10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901명에서 1,909명으로 8명이 증원되고, 소방공무원 정원은 2,934명에서 3,033명으로 99명이 증원되며, 교육공무원(43명), 의회사무기구(98명)의 정원은 변동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고, 법률전문인력 1명, 회계감사인력 1명, 지적재조사 2명, 도축검사 2명, 산업단지관리 1명, 호국의 메카조성 1명 등 국·도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8명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소방안전망 구축과 선제적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영덕소방서 신설 34명, 119안전센터(5개소) 신설 61명, 119종합정비센터 인력보강 4명 등 소방공무원 정원을 99명 증원하고, 지방공공·개인서비스 요금관리 등 물가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급변 6월 30일자로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물가관리 한시정원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

제정이유는 경상북도의 산업디자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산업디자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디자인 분야 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산업디자인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2013년 4월 22일, 박병훈 의원 대표발의, 김영석·구자근·김봉교·김세호·김영식·김종천·김하수·김희수·김희원·나기보·나현아·배수향·서정숙·심정규·윤성규·이정호·장영석·정상진·추재천·홍진규·황이주 의원 공동발의(21인)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2013년 4월 22일, 황이주 의원 대표발의, 이태식·한재석·이상용·김창숙·이경임·변우정·곽광섭 의원 공동발의(7인)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와 안정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치료센터 등 청소년시설 설치를 규정하며,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는 「법」 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내용이다.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발의자: 2013년 4월 22일, 김명호 의원 대표발의, 이상용·전찬걸 의원 공동 발의(2인)

제정이유는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고,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자문·심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예술인 근로실태조사 실시, 조례시행 시기는 공포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발의자: 2013년 4월 17일, 김수용 의원 단독발의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금연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정의를 명확화 하고, 도지사는 보건기관 금연프로그램으로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직접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활용·지원, 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흡연의 위험성 경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

폐지이유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시책에 따라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위해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징수하던 항결핵제보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 출자(현금) 계획안

소관상임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

동의안 제출이유는 (주)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1,993억원 상당 규모의 자본금(현금) 출자를 도의회 의결(2011.12. 8)을 받았으나, 이후 인수 협상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합의된 자산에 대해 본 계약을 체결(2012. 3. 26)하고 합의되지 않은 이권자산에 대하여 법원조정 결정(2013. 3. 20)에 따른 매수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289억원 상당 규모의 자본금(현금)을 추가 출자하여 도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관광공사에 자본금(현금)을 추가로 출자(28,885백만원·매수원금 152, 이자 115, 운영자금 22)하고, 출자조건은 (주)경북관광개발공사 매수대금에 대해 10년 분할 출자, 이자는 중도금(잔금)지급일 현재 양도성 예금증서(91일)의 이자율에 가산금리(1.0%)를 합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주)경북관광개발공사 잔여 매수대금에 대하여는 도의 출자로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납부토록 함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운영상 영업이익 발생시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이익금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교육감

개정이유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확정기준과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86명에서 5,259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373명을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확정기준에 교육전문직원을 신설하고, 장학관·연구관 및 장학사·연구사 비율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2013년 4월 22일,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장두욱·홍진규·장영석·한재석·윤성규·이시하·윤창욱·이왕식 의원 공동발의(8인)

개정이유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기술제안 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명칭 변경,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할 때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명칭 변경,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설계분과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명기 및 기피·제척 대상 확대, 심의사항 의결 및 감점 강화, 설계평가회의 운영규정 강화를 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발의자: 2013년 4월 22일, 황이주 의원 대표발의, 홍진규·한창화·김희수·박권현·김봉교 의원 공동발의(5인)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4조 개정(대통령 제24069호 2012.8.23.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주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재해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피 또는 퇴거 주민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교육감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윤리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외부위원 위촉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간사인 감사담당관의 직급변경에 따라 위원회 간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 어투 표현 및 띄어 쓰기 등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외부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 어투 표현 및 띄어 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출자: 2013년 4월 22일, 경상북도교육감

개정이유는 학교이전으로 인한 위치를 변경하고, 교명변경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고, 경산과 인근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이전으로 인한 위치 변경(유치원 1, 초등학교 1), 교명변경(이동중학교→포항이동중학교), 특수학교 신설(경산지인학교)로 심의사항 의결, 감점강화 및 설계평가회의 운영규정 강화를 하는 내용이다. 🍷

울릉공항 건설로 독도 실효지배 강화

이용진 의원(울릉)

울릉공항 건설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국가 영토 수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도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공항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수

은, 조류변화로 독도 연안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도를 기점으로 1~2마일 이내 자망, 통발조업을 금지토록 하는 제도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요양등급 받지 못한 어르신, 복지정책 수립

이정임 의원(비례)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16.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3월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4,202명으로 치매 유병률 9.2%를 적용해 보면 40,2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요양등급 신청 도민중 13,227명은 등급을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치매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마련 촉구

김말분 의원(비례)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인과 어린이 등 도내 교통약자가 82만 1,019명으로 인구 대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콜택시가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북도는 법

정보유대수 199대에 훨씬 못미친 4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산별시’ 대통령 행사로 격상

김명호 의원(안동)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도산별시를 도백이 주관하고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백일장 <도산별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도산별과 시행 222주년을 기하여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절

히 엮어내고, 시상(施賞)의 규모와 품격을 높여서 정조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장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백일장 <도산별과>로 격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 폐지 및 정년연장 검토 제안

김영식 의원(경산)

현재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사회 적응 및 재취업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아래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병행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선통신사 재조명 및 마상재 축제 복원해야

한혜련 의원(영천)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200여년간 12차례 이루어진 한·일 선린외교로서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과 국가적 축제로 자리잡았고 부산의 경우 2003년부터 매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차원에서 조선통신사 행

렬이 지나간 길을 한·일 문화 실크로드로 재조명하여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를 복원하고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마상재를 중심으로 지역축제를 복원하는 방안을 도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면지역 소규모학교 보장 마련 촉구

이상용 의원(영양)

경상북도의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영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는 제외되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폐합 전까지 60명 이하의 모든 면단위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기회 확보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경북지방여성활성
Gyeongbuk Provincial Office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lfare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4대 사회악』 척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 여성 등 대상으로 가해지는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 및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인 행위
 112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피해대상은 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남
 112신고 / 안전 Dream 포털 / 여성긴급전화 1366 /
 원스톱·해바라기센터 054-245-5933 / 아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학교폭력 -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면 그 자체가 ‘학교폭력’
 국번없이 117 전화 / 안전드림(www.safe182.go.kr) /
 문자(#0117) / 이메일, SNS신고

불량식품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듭니다
 ☎112신고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올해로 우리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 환갑이 된 셈이니 그동안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것이다. 우리는 그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까지 이뤄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저개발국가 중에서 이렇게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원조 수원국에서 후진국에 원조를 주는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간단없이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활력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이념집단 간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에 대립과 갈등, 불평등과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으로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 참으로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향후 50년간 새로운 민족중흥의 신세기가 펼쳐질 것인가 아닌가 결정될 것

이다.

이런 시점에서 새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주요 국가시책의 하나로 추진하려 하고, 또 새로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다시 주창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과거 1970년대 대의 새마을운동과는 상당히 다르며, 또 달라야 한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다면, 새로운 새마을운동은 좀 더 넓은 지역단위에서 '함께 잘 살자'는 운동이며, 더 나아가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다 함께 잘 살자'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강조되던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눔·봉사·창조'라는 새로운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새마을정신은 사회양극화를 지양하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현 단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매우 적절한 정신개혁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새마을운동에는 아직도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지구상의 많은 빈곤국가나 개발도상국을 위한 '글로벌 새마을운

동'도 포함된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6.25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다.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국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새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위해 꼭 필요”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 도민들이 주위의 가난한 이웃과 서로 나누고 함께 하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새마을정신'으로 충실되어 있다면, 우리 도가 도정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할 것인가. 국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지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조와 자립' 정신, 그리고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새마을정신이 있다면, 지방자치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영남대학교는 설립자

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박정희정책 새마을대학원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연구자, 사회활동가, 학생 등을 뽑아 이들에게 한국의 개발경험과 새마을운동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하면 모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지구상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대학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이다. ☀



박태우
박태우 한의원장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어깨나 뒷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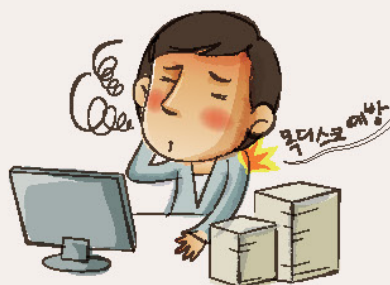
이런 경우 대개 단순한 근육통으로 쉽게 통증이 해소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없다면 '근막통증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막통증증후군이란 신경학적 이상은 없으나 어깨나 뒷목 등의 근육이 뭉쳐 빠근하고 쑤시는 증상을 말한다. 흔히, 옛말에 '담이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등, 앞뒤로 굽히고 젖혀지지 않는 경우, 어깨 날개뼈 부위의 급격한 통증, 깊은 호흡을 할 때 옆구리 쪽의 통증으로 호흡이 불편한 증상 등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을 호소한다.

근막통증증후군의 발생이유는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생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컴퓨터 등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어깨가 빠근해지는 것을 호소하는 것을 자주 볼 수

건강칼럼

목·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유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한손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근육을 사용함으로 피로가 쌓이게 된다.

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처음에는 목이나 어깨 부위가 조금 결린다는 정도의 느낌만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통증이 심해지며 나중에는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통증부위의 근육이 단단해지며 뭉치게 된다. 심해지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

우도 있다. 만성적인 어깨통증은 물론 목 디스크, 어깨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눈 뒤의 측두통이 있을 때 원인을 찾아보니 등이나 어깨에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통증을 일으키는 곳이다. 뒷 팔의 전면과 후면, 손가락 통증이 지속적으로 저리게 느껴질 때는 목의 일부 근육의 영향일 수도 있다. 어깨 삼각근 중간의 깊숙한 부위의 쑤시는 증상, 어깨 앞 깊숙한 부위의 통증,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잠자리에서의 통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근막통증증후군은 통증은 있으나 MRI나 CT촬영으로도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통증이 가벼운 상태일 때 치료받는 것이 좋다.

예방과 치료방법은 가벼운 경우에는 휴식과 마사지, 온열치료도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업무 중간에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긴장된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어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국부적이고 단순한 피로에 의해 유발된 증상이라면 침이나 부항 혹은 뜸으로 치료할 수 있고 전체적인 불균형에 의한 증상이라면 어혈을 감소하고 순환을 강화하는 소풍혈혈계통의 한약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구시 북구 태전동, ☎ 053-322-3515) ☀



İSTANBUL-GYEONGJU
DÜNYA KÜLTÜR EXPO 2013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상북도는 2013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기 간 : 2013. 8.31 ~ 9.22 (23일간)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시가지 일원

• 주 제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 행사 프로그램(9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공 연 _ 한터 전통문화공연·오케스트라합동공연

전 시 _ 한국문화관, 예술교류전

영상·체험 _ 영화축제, 한터 전통문화체험

특별 행사 _ K-POP, 세계민속공연축제 등

